

김진의 (金鎭義)

내가 교수로서 삶의 대부분을 살다 보니, 언제부터 교수로 살아갈 수 있는 짝이 자라나게 되었는지 나 스스로 가끔 생각해 보게 된다. 요사이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에 비할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일찍부터 문자와 접하게 되었다. 6.25전 내가 만3살이었을 때쯤 가을, 뒷마을에 기거하시던 증조부께서 아침 식사는 우리 집에 오셔서 드셨는데, 어느 날 아침 밥상이 들어오기 전, 한시(漢詩)로 도배된 벽의 하늘 천(天) 자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셨다. 물론 대답을 못했고, 그 자리에서 하늘 천을 배웠다.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 天을 다시 물어 보실 때, 자신 있게 대답했더니 그 때부터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일찍부터 문자를 접하게 되었다. 그 후 기억나는 것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올라 갈 때쯤 구구단 암송했던 것,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과학자가 최고라는 맹신을 하게 된 것 등으로서 다른 학생들 보다 앞서 나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성경 암송도 곧잘 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종교는 내가 추구하는 자연과학과 어긋남을 알게 되었고 많이 실망도 하게 되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경외하여 십만 년여에 걸쳐 짝튼 종교라는 전통은 내가 어린 시절을 살아온 추억에 비추어보면 꼭 자연과학적 진리에 맞아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비록, 통치자들이 종교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더라도 우리 같은 인생에게는 추억이 깃든 일상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859년 다윈은 “Natural selection”이라는 방법에 의한 진화론을 내놓게 되었고 이제 막 150주년을 지냈으며, 그사이 우리는 엄청난 지식을 진화론에 관해 획득했다. 성경의 구절구절이 틀린 것으로 적혀 있더라도 지금은 종교 전통의 확립과정에 생긴 것으로 나는 이 오류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다. 성인으로서 추앙받는 예수나 석가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자연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규범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극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이미 인간은 진화론의 진화범주를 벗어났다고 사료되고, 진화론의 진리만을 고집한다면 적자생존을 내 생의 가치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성인들의 가르침처럼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보다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덧붙인다면, 자연과학자로서의 삶은 진리만을 말한다는 철칙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진리만을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논문에서나 평상시에나--이가 자연과학자이다.[내 이름은 자연과학자가 되라는 이름인 것 같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자이다. 이 분야는 1970년대 이후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고, 따라서 내 일생의 연구에 대해 희열을 느낀다. 우주의 돌아가는 원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학문을 하게 되었으므로, 물리학에서 큰 업적을 낸 사람들이 논문을 낸다는 Reviews of Modern Physics 에 두 편(1981년, 2010년)을 실은 것은 이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의 연구는 액시온이라는 입자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액시온과 관련이 있다. 우주의 기본 입자를 찾아낸다는 것--이것은 입자물리학자들의 꿈이었고 액시온은 나의 꿈이다. 파인만은,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한 가지만을 미래의 지적인 생명체에 남긴다면, “원자론”을 남기고 싶다 했다. 만약, 하나 더 남긴다면 무엇을? 나는 “우주의 기본입자들”을 남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우주의 법칙이 다 들어 있으므로.